

그들의 무덤앞에 서니 죽음은 없더라



인생은 아름다워라

맹난자 저음
김영숙 9천 9백원

‘묘지찾아 3판리’.

맹난자(에세이문학 발행인)씨가 괴테, 톨스토이, 헤세, 세익스피어 등 세계적인 대문호 29인의 묘지를 돌아보고 왔다. 그 여정과 감상을 담은 책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다.

이 책에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을 다니면서 그 나라 독자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대문호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좋은 테마도 많은데 왜 하필 ‘묘지’일까. 책의 부제에 달려 있는 ‘영혼의 순례, 묘지여행’을 보는 순간 한번쯤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만큼 ‘묘지’란 명사는 우리 정서상 무섭고 섬뜩하고 꺼림직한 부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팬들의 키스카르가 인상적인 ‘오스카 와일드’ 묘비.

세계 대문호 29인 묘지여행 ‘잘 죽는 법’ 꾸준히 탐구

■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

■ ‘삶이란 좋은 것이다. 죽음 역시 좋은 것이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기록이면 무엇이든간에 밑줄 긋고 가위로 오리면서 20여년동안 스크랩해 온 맹씨에게 죽음은 마냥 무겁거나 어두운 주제만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죽음을 두고 ‘오직 열반락 만이 있다’고 한 일화를 경전에서 읽으며 맹씨는 불교에서 육신의 죽음이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죽음을 초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단한 삶을 꺼내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맹씨가 주장하는 ‘잘 죽는 법(?)’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묘지여행을 마친 맹씨는 이런 전형적인 모델로 괴테와 톨스토이를 꼽았다. 치열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작품속에서는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의 경지가 느껴지는 완성된 죽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묘지여행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책에서 볼 수 없었던 귀중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여사는 일평생 문화와 철학의 반역자로 살아왔지만 보부아르는 죽기 전 ‘내 무덤을 사르트르 옆에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 살아생전 가슴에 쌓아둔 원망 탓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두 사람의 무덤은 몽파르나스 묘지 양지바른 곳에 나란히 놓여 있다. 사후의 일은 남은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모든 여행에는 아쉬움도 있는 법이다. 맹씨는 중국 심양으로 도연명을 만나러 갔다가 가묘(假墓)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머금고 돌아야 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단순한 기행서라기 보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교외에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묘비 앞에선 맹난자 씨.

는 수필문학서라는 요소가 물씬 풍기는 이유는 문장 곳곳에 녹아 있는 맹씨의 소녀적 감수성때문이다. 모파상과 보들레르가 숨을 거둔 정신병원 앞을 서성이며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픔에 잠겼다. 또 파리의 ‘미라보다리’를 노래했던 아폴리네르의 시성(詩性)을 저자 나름대로의 감성으로 다시 읊조렸다. 죽음앞에 당당했던 노신과 카뮈, 아름다움의 본질은 슬플 수 밖에 없다는 오스카 와일드, 그것을 직접 자신의 생애와 몸으로 입증해 보인 보들레르와 다자이 오사무, 에드가 엘런 포우 등이 영원히 누워 있는 현장에서 한동안 말없는 긴 침묵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10여년의 묘지여행을 마친 맹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문호들을 작품으로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대부분 생전에도 삶에 대한 고통과 가난·사랑·이념·질병 등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生)과 사(死)의 길목에서 남긴 그 한마디는 숙연하다. 백거이는 ‘인생은 좋은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했고, 카잔차키스는 ‘삶이란 좋은 것이다. 죽을 역시 좋은 것이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세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라고 말했다. 또 입어당은 ‘인생을 널리 아름다운 한편의 시’라고 노래했다.

맹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의 묘지가 택지 개발로 출렁거릴 때부터 덧없는 인간의 실재를 확인하고 싶어 죽음이란 화두에 몰두했다’며 ‘현재 내 자신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무덤을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맹씨는 “특히 불꽃처럼 살다간 작가들의 일생과 작품 배경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작품속에서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는 실제로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고 이번 출간의 의의를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몽파르나스 묘지에 나란히 누워있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묘지(사진 위)와 중국 안휘성 청산에 있는 이태백의 무덤.



대몽골 시간여행

백석규 저
굿모닝미디어 펴냄 3만 원

광활한 대륙을 경연한 유목민들, 불굴의 모험정신으로 끝없는 이동과 변화를 통해 제국을 경영했을 때 세계는 그들의 발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동을 멈췄을 때, 제국의 역사도 함께 중단됐다. 칭기즈 칸이 통치한 몽골은 바로 이런 유목민이 세운 대표적인 국가였다. <대몽골 시간여행>은 ‘유목 제국의 세계 경영사’라는 부제하에 천년에 가까운 몽골사를 복원했다. 책은 저자를 비롯한 14명의 YTN 취재기자들이 2만Km가 넘는 유라시아 대륙을 100일 이상 누비며 영상에 담은 화면과 기억들을 글로 풀어낸 것이라 한 점에 자못 흥미롭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 700여 년 전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유목민들이 만들어 낸 영광과 어둠의 역사를 수많은 자료조사와 인터뷰, 답사를 통한 현지 검증으로 조망해서 인지 따냄새가 책 속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문에 YTN 홈페이지와 야후 코리아 뉴스 사이트에 432회에 걸쳐 이 책의 글들이 연재되는 동안 네티즌들의 반응이 높았다고 들었다.

유라시아 지배한 몽골 1천년史

100일 이상 2만Km 누비며 영웅의 시간 기록

저자는 이 ‘유목민 정신’의 회복을 역설하며 한반도에서 북방의 조선후조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리고 그 중앙의 몽골인을 연결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신 실크로드’를 꿈꾼다.

칭기즈칸 시대에 초점을 맞춰 그는 그동안의 관점들과 달리 이 책은 그 시대를 물론 그 이후의 융성기와 몰락 과정을 그렸다. 300장에 달하는 관련 사진과 지도, 인물 추정도도 곁들였다. 이 모두가 당사국인 몽골은 물론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

칭기즈칸은 자손들에게 유목민의 기질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쿠빌라이칸은 궁궐 안에 몽골인의 이동 주택인 ‘게르’를 설치해 놓고 그 속에서 집을 지었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정주민 사회의 안락한 생활을 배우다가 결국 세계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16세기 말 알탄칸의 주도로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뒤 융성한 몽골 전사들은 활과 칼 대신 불경을 듣게 됐다.

저자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초원과 가축,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몽골의 어제와 오늘을 교차시킨다. 초원에서 말을 비롯한 가축을 키우며 산 거대한 유목민들이 세계 경영의 역사를 만든 과정은 오늘날의 현실과 대비해 많은 교훈을 준다. 바로 이러한 몽골의 세계 경영사는 유한한 자원으로 세계 무역시장을 개척하려는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마다 기자출신인 저자가 곁들이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은 몽골사를 한층으로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사실상 만나려했던 몽고의 역사를 새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김남기(한울여행사 대표)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I

질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시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신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요 · 경전봉정식	우리절
막재	4.18	일	수익점안 ·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6회 관정법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사언절 <<이장 보살보현경>>을 봉경한 뒤 나눠드립니다. 이 <<본원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지장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매용일 경우라면 권장 30,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 무료로 보시합니다. 막재에서는 윤2월을 보내면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선물이 될 금강달라니 명주판을 점안하여 보급합니다. 명주달라니는 2장 1세트에 24,000원입니다.

생전예수재법회 II

우리절에서는 오는 4월 16일(음력 윤2월 그믐날) 생전예수재 회향 때에 맞춰 불자님들께서 미리 정한 두었던 수의를 가져오시면 거룩하고 정엄하게 점안을 해 드립니다. 역법상 및 백년만에 한 번 올릴까 한 중요한 윤2월에 부처님 앞에서 수의를 점안하였다가 임하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점안동참비는 무료입니다.